

오야마 가문 주택

오야마 가문 주택은 부유한 지주의 집으로 1800 년대 중반 아키타 상류층 농가 주택의 뛰어난 전형적인 예입니다. 1973 년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이 집에는 건축적인 면에서 흥미로운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붕 용마루 중앙부를 따라 자라는 들잔디입니다. 이는 강우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지붕의 측면이 만나는 틈새로 **스며드는 강우를 흡수함으로써** 들잔디가 지붕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실내 마구간도 있습니다.

오야마 가문 주택은 **L 자형을 한 주문즈쿠리 양식이라는 구조의 건물이며, 날개(中門, 주문)가** 외부 통로를 통해 안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3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에도시대(1603~1867 년)의 엄격한 계급제도가 배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은 하인과 농부가 사는 공간으로 그들은 마구간 위층에서 잤습니다. 안채는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으며, 안채에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방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문(中門)이라는 별채에는 방이 몇 개 있는데, 이곳은 일 년에 몇 번씩 여행하면서 머물렀던 인근 히야마성의 영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주문에는 전용 출입구가 마련되어 빈객에 대한 배려가 이뤄졌습니다.

이 집이 사용되었던 시절에는 집의 마루보다 낮게 만들어진 노상(이로리 화로)에 불을 때었습니다. 불을 때면 그 연기가 습기를 제거하고 해충을 내쫓기 때문에 초가지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1980 년경부터 거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붕은 이전보다 빠르게 부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가지붕은 15 년에서 20 년마다 초가를 교체해야 하지만, 초가 교체 공사 기술을 가진 장인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야마 가문 주택의 역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이란 이 집의 원래 소유자는 건강이 나빴는데, 한 점쟁이가 오래된 물건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의 소유자는 집과 관련된 많은 물건과 기록을 불태워 버렸습니다.